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평균 21% ↓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 - 보건복지분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장성 강화 '본격화'

2·3인실 병실로 부담 내려가고 치매국가책임제 '첫발'

다음달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려온 피부양자 30만 명에게도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환자가 100% 내야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면 된다.

9월부터 금융시기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 인제도가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지원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장성 강화 '본격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총 22개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7월 분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약 556만세대에 대해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월평균 3만원가량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진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월세 등 소액 재산도 공제 없이 부과하던 재산보험료엔 재산 보유액 중 재산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이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39만세대에 보험료가 40%까지 인하된다.

생계유지차까지 보험료를 매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돼 290만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까지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상 고가차량 제외), 9년 이상 노후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 보험료는 30% 감면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은 보험료는 오른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등을 초과하는 39만세대는 다음달부터 약 17% 오른 5만6000원씩 더 내게 된다.

다음달부터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피부양자 6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1만세대로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올라갈 수 없게 돼 23만세대가 추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인실 병실로 부담 내려가고 치매국가책임제 '첫발'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 5800개 병상)과 종합병원(298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상

급종합병원은 40~50%(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30~40%(2인실 40%, 3인실 3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이다.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등도 이상 치매가 있으며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법률자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도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으로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감경 혜택이 없던 보험료 순위 25% 초과 중산층도 최대 40%까지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2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올 9월부터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어린이집·유치원생 48만명과 초등학생 277만명 등이 더해져 563만명으로 늘어난다. /송효철 기자

저소득층 5천명에 年35만원 지급

기초생활·차상위계층중 만25세 이상 성인 이달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접수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50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에 활용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달라지는 것'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복지 영역을 평생교육 단계로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은 42.3%가 평생교육에 참여했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은 20.9%에 불과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만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연간 35만원 한도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 바우처를 활용해 초·중·고 학력 취득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등 학력취득 교육 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미래형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매치업'(Match업)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kcard.or.kr)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스

전북대, THE 아태 평가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 중에선 16위... 연구·학생교육 등 우수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평가 중 하나인 타임스고등교육이 28일 발표한 '2018 아시아-태평양 대학평가'에서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6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최근 전북대는 로이터의 아시아 혁신대학 평가에서 거점국립대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QS세계대학평가, THE 아시아 대학 평가 등 공신력 있는 글로벌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평가는 아시아-태평양 13개국 250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25%, 연구 30%, 논문 피인용 30%, 국제화 7.5%, 산학협력 실적 7.5%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전북대가 이 같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학 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북대는 다채로운 연구 지원과 함께 승진제도를 국립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특히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고온플라즈마융합 연구센터,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 로스알라모스연구소 등 세계 7대 연구소 집중 육성해 연구 경쟁력을 높여왔다.

특히 ACE사업을 비롯해 CK사업, LINC사업, CORE사업 등 정부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굵직한 재정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 비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학생 1인당 1,635만원의 교육비를 투자해 거점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가 많은 대학으로 손꼽혔다. 이는 전국 185개 국·공·사립대 평균 1,485만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위셋사업단, '미리가는 연구실·전북이공계청소년학술제' 열어

지역 고교생 대상 비전·전공 소개·산업체 탐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WISET전북 지역 군산대사업단은 7월 19일을 '여성공학인의 날'로 정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에 대한 비전 및 전공 소개, 산업체 탐방 등을 진행하는 GEW(Girls' Engineering Weeks) 행사를 연다.

참여 학생들은 포스코 광양연구인프라그룹장 김희 상무(보)의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인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은 뒤 건축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전자공학 등 5개 전공별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을 가지게 된다. 지역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주), (주)대우식품, (주)세이베스틸, JIAT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현장탐방 및 기술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사업단은 또한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미리가는 연구실 및 전북이공계 청소년학술제'를 여름방학 중에 진행한다. 전북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4~5명으로 팀을 이뤄 지역대학의 이공계

연구실에서 일주일동안 앞선 전공체험을 통해 이공계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미리가는 연구실은 전북지역 31개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총 167명(여학생 85명, 남학생 82명)이 군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에서 개방한 38개 연구실에서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4회를 맞이하는 전북이공계청소년학술제는 지역의 청소년 축제로 자리잡았고, 올해는 9월 7일 개최 예정이다. 학술제에서는 미리가는 연구실 참여 학생들의 결과물인 포스터가 전시되며, 행사 당일 포스터 및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하고 시상이 이루어진다.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 진출을 목표로 하는 WISET전북 지역군산대사업단은 학생들과 더운 여름을 의미있게 보내고자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WISET전북지역 군산대사업단은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에 대한 비전 및 전공 소개, 산업체 탐방 등을 진행하는 GEW(Girls' Engineering Weeks) 행사를 연다.

도교육청, 미 국무부 선발 고교생 한국어 교육

2014년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NSLI-Y(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 for Youth)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에서 선발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다.

미국 학생들이 주요 언어 사용 국가에 파견되어 현장에서 해당 언어와 생활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한국어 외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도 이 프로그램의 해당 언어이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이하는 전북도 교육청 주관, NSLI-Y 프로그램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20명의 미국 고교생들이 8월 9일까지 전주신흥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